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105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8.12~2026.08.18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가뭄(용수), 농업(농가), 청년(창업), 위성곤(민선), 다랑쉬굴(희생자)
경제·관광	수출(생산), 취업자(고용), 항공(국제선), 호텔(브랜드), 키위(감귤)
지역·사회	열대야(폭염), 강수량(침수), 광복절(평화), 도로(차량), 꽃자왈(생태)

※ 분석 기간 : 26.08.12.~26.08.18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가뭄(용수)	- 가뭄·폭염 특교세 14억5700만원 긴급 투입 - 가뭄·폭염에 더덕 재배면적 41% 피해 - 정부에 맞춤형 농업용수 중장기 대책 주문
	농업(농가)	- 가을재배용 수경재배 씨감자 8.2t 공급 - 도의회,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 간담회 - 방치된 발담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제시
	청년(창업)	- 제주 바꾼 청년 4명 '제주청년대상' 선정 - 청년기본소득 설계 참여 청년 30명 모집 - 탐동 도시재생혁신지구 2500억 투입 추진
	위성곤(민선)	- 시도지사협 총회서 '기후경제수도' 발표 -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26일 인사청문회 - 을지연습 통합방위 '을중' 격상 심의
	다랑쉬굴(희생자)	- 다랑쉬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 1992년 발굴 다랑쉬굴, 4·3 비극의 상징 - 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4년 만에 재개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수출(생산)	- 상반기 수출 역대 최고...상위 5개사 쏠림 - 고수온·생산비 급등 광어양식 '3중고' - 딸기묘 첫 자체 보급·메밀 간편식 개발
	취업자(고용)	- 고용률 72%...실업률 2년 8개월 만에 최저 - 단기·고령층 쏠림...고용의 질 저하 우려 - 이전기업 직원 정착지원금 최대 2000만원
	항공(국제선)	- 제주항공 국제선 환승객 10만명 돌파 - 광복절 연휴 23만명 입도...국제선 급증 - '도민 이동권 보장' 필수항공노선 입법
	호텔(브랜드)	- 제주시 첫 메리어트 '쉐라톤 제주' 9월 개관 -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 뷰티 브랜드 '제주인디' 일본 100곳 입점
	키위(감귤)	- 제주 키위 생산·유통 실태조사 첫 발간 - 수입산 공세에 '탐나도키위' 공동 대응 - 노지감귤 관측조사에 AI 자동화 기술 도입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열대야(폭염)	- 한 달여 만에 멈춘 열대야, 하루 만에 재발 - 비 그친 제주, 다시 폭염·열대야특보 - 온열질환 사고 이어져...취약 현장 점검
	강수량(침수)	- 연휴 최대 685mm 폭우...한 달 가뭄 해갈 - 주택 침수·나무 쓰러짐 등 호우 피해 - 단기간 폭우에 일부 작물 생육 피해 우려
	광복절(평화)	-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대통령 표창 추서 - 제주 출신 6명 독립유공자 반열에 - 도내 유일 생존 강태선 애국지사 위문
	도로(차량)	- 전국체전 대비 도로 15개 노선 정비 - 삼성여고~칼호텔 도시계획도로 내년 개통 - 광복절 연휴 도내 곳곳 차량 사고 잇따라
	꽃자왈(생태)	- 꽃자왈공유화재단 새 비전·통합 CI 공개 - '정원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제17회 거문오름 트레킹 개막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8월 12일~8월 18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822건임
 - 정치·행정 분야 239건, 경제·관광 153건, 지역·사회 430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가뭄(용수), 농업(농가), 청년(창업), 위성곤(민선), 다랑쉬굴(희생자)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가뭄 (용수)	- 가뭄·폭염 특교세 14억5700만원 긴급 투입 · 제주도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4억5700만원(가뭄 8억1600만원·폭염 6억4100만원)을 확보해 18일부터 가뭄·폭염 현장 대응에 곧바로 집행하며, 월동당근 파종과 월동채소 파종·정식이 겹쳐 농업용수 수요가 물리는 시기에 맞춰 가뭄 대응 시설·장비 확충에 우선 투입함. · 예산은 가뭄 피해가 큰 구좌 당근 재배지 등의 농업용수 공급 시설·장비와 시장 등 생활공간의 폭염 저감시설 확충에 집중되며, 농민들 사이에서는 땀질식 처방 대신 파종 단계부터 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등 반복되는 가뭄에 대
-------	------------	--

정치·행정	가뭄 (용수)	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제기됨. - 가뭄·폭염에 더덕 재배면적 41% 피해 · 장기간 이어진 가뭄과 폭염으로 제주시 구좌읍·성산읍·표선면 등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더덕 재배지 약 130ha(40만평)에서 고사 등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도내 더덕 재배면적의 약 41%에 해당해 제주도가 지난 10일부터 피해 신고 접수와 현지 조사에 착수함. · 제주는 전국 최대 더덕 생산지이지만 더덕이 임산물재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피해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 돌아가는 상황으로, 제주도는 대파대 등 직접 지원과 재해대책경영자금 등 간접 지원을 추진해 가뭄·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더덕 농가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임. - 정부에 맞춤형 농업용수 중장기 대책 주문 · 문대림 국회의원이 12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업가뭄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제주 가뭄 상황과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점검했으며, 최근 2개월 제주 누적강수량이 309.5mm로 평년의 65% 수준에 그치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농업용수 확보 대책과 투자를 정부에 요구함. · 문 의원은 지하수 의존도를 낮추고 농업용수 공급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김한규 의원도 15일 구좌읍 일대 가뭄 피해 농가와 농업용 저수조 확장 공사 예정 현장을 찾아 농업용수 확보 대책을 점검하는 등 가뭄 대응을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짐.
	농업 (농가)	- 가을재배용 수경재배 씨감자 8.2t 공급 ·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안정적인 감자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올해 가을 재배용 수경재배 씨감자 8.2t을 지난 1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 농가에 공급하며, 국립종자원의 포장검사와 종자검사를 거친 국가보증원종 씨감자가 보급됨. · 농산물원종장은 2009년부터 뿌리에 양액을 안개처럼 분무해 기르는 분무경수경재배 방식으로 무병 우량 씨감자를 생산·공급해 오고 있으며, 병이 없는 우량 종자의 안정적인 보급을 통해 도내 감자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감자 생산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도의회,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 간담회 ·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이 12일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에서 제주도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회장 강동만)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어 제주 농산물의 수급·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하성용 의회운영위원장과 장정훈 농수축위원회 부위원장 등 도의회 관계자들이 함께함. ·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수급 안정 지원사업 기금 상황과 세척농산물 조례 제정 등을 건의했으며, 도의회가 농산물 수급 관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 과제를 살피면서 농산물 수급·가격 안정을 위한 의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 방치된 발담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제시 · 제주연구원이 18일 발표한 발담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제주발담의 국내 첫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계기로 제주

정치·행정	농업 (농가)	시 구좌읍 월정리에 조성된 발담테마공원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리할 인력과 예산이 없는 실태가 지적됨. · 발담축제 기간을 제외하면 상시적 관리·운영체계에 한계가 있어 수풀이 발담과 산책로를 뒤덮을 만큼 우거지고 안내판도 가려진 상황으로, 연구진은 세계농업유산 발담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지역관광과 연계한 거점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함.
	청년 (창업)	- 제주 바꾼 청년 4명 '제주청년대상' 선정 · 제주도가 2026 제주청년대상 수상자로 혁신역량 부문 김현준(37·드론엑스), 도전정신 부문 임주희(28·넉넉), 사회기여 부문 문보미(32·서울대 대학원), 특별공로 부문 이유정(38·제주해녀협회)씨 등 제주 사회를 바꾼 온 청년 4명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힘. · 드론 등 디지털 융합기술로 마을의 공간과 생활문화를 기록하고,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경험을 실용 한국어 교재로 만들고, 15년 넘게 아동·장애인 곁을 지키고, 제주해녀문화를 194개국에 알린 성과가 인정됐으며, 시상은 9월 19일 '제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임. - 청년기본소득 설계 참여 청년 30명 모집 · 제주도가 민선 9기 공약인 제주형 청년기본소득의 단계적 도입 방향을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청년기본소득과 청년정책에 관심 있는 도내 19~39세 청년 30명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하며, 기본소득 관련 전문지식이나 정책 참여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음. · 참여 청년들은 8월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제주형 청년기본소득, 청년과 시작하다' 토론을 진행하며, 청년기본소득 도입 모델 설계에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 수요자인 청년이 주요 정책의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됨. - 탐동 도시재생혁신지구 2500억 투입 추진 · 제주도가 제주시 탐동해변공연장 일대를 혁신 창업 플랫폼으로 만드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로 추진하며, 총 2500억 원을 투입해 창업 플랫폼인 제주혁신캠퍼스와 제주혁신스퀘어 등을 원도심에 조성해 창업 거점으로 키울 계획임. · 제주개발공사가 공동 참여하는 이 사업은 산업·상업·문화·관광·여가·생활 SOC 복합기능을 원도심에 조성하는 것으로 제주 도시재생사업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이며, 혁신 창업 기반 확충과 함께 침체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위성곤 (민선)	- 시도지사협 총회서 '기후경제수도' 발표 · 위성곤 지사가 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지사들과 지방정부 주요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총회에서 실질적인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함. · 위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 아시아 최초의 무탄

정치·행정	위성곤 (민선)	소 도시이자 '기후경제수도 제주'를 실현하겠다는 목표와 비전을 발표했으며, 풍부한 바람과 햇빛 등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고 그린수소 생산 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제시함. - 이창흠 기후경제부지사 26일 인사청문회 · 민선 9기 첫 제주도 기후경제부지사로 지명된 이창흠 후보자(58)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실시될 예정으로, 총 9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임정은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채택함. · 인사청문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과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으며, 후보자의 윤석열 정부 비서관 이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선 9기 도정에서 신설된 핵심 직위인 기후경제부지사 인선 검증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집중됨. - 을지연습 통합방위 '을중' 격상 심의 · 위성곤 지사가 12일 오는 18일 시작하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통합방위 '을중' 사태 선포를 심의하기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를 주재했으며, 회의에는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최은희 제주도교육청 행정부교육감, 해병대 제9여단장, 제주경찰청장 등이 참석함. · 제주의 통합방위 연습 수위가 지난해 '병'종보다 한 단계 높아지면서 작전을 지휘하는 책임 지휘관도 제주경찰청장에서 해병대 제9여단장으로 격상됐으며, 연습 수위 강화에 맞춰 올해 을지연습에서는 유사시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 점검이 한층 강도 높게 진행될 전망이다.
	다량쉬굴 (희생자)	- 다량쉬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 국가유산청이 12일 제주4·3 당시 집단 학살이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소재 '제주 4·3 다량쉬굴 은신처와 학살터'를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으며, 4·3 유적으로는 수악주둔소에 이어 두 번째로 국가등록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릴 예정임. · 다량쉬굴은 30일 이상의 공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유산위원회 심의에서 등록이 최종 확정되며, 피난처의 원형이 잘 보존돼 학술적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4·3의 비극을 상징하는 현장이 국가 차원에서 보존·관리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1992년 발굴 다량쉬굴, 4·3 비극의 상징 · 다량쉬굴은 1948년 초토화 작전 당시 굴에 숨어 있던 종달·하도 주민 등 9살 소년을 포함한 양민 11명이 연기에 질식사 희생된 곳으로, 1992년 발굴 당시 유해 주변에서 무쇠술과 숟가락, 농기구 등이 발견됐고 지금도 발굴 당시의 유물이 동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음. · 1992년 처음 발굴되면서 4·3 진상규명운동사의 분기점이 된 상징적 장소로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실에는 내부 현장이 재현돼 있으며, 이번 등록 예고를 계기로 4·3의 아픔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알리는 역사 교육 현장으로서 다량쉬굴의 가치가 재조명됨. - 4·3 희생자·유족 추가신고 4년 만에 재개

정치·행정	다량취굴 (희생자)	·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18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2023년 6월 30일 신고기간 만료 이후 4년 만에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제9차 추가신고가 진행될 예정임. ·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가족관계 정정과 보상금 신청 기한 연장도 담겼고 유족 결정권 이양 등도 함께 추진되며, 그간 신고 기회를 놓친 희생자와 유족이 명예회복과 보상 절차를 밟을 길이 다시 열려 4·3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수출(생산), 취업자(고용), 항공(국제선), 호텔(브랜드), 키워(감귤)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수출 (생산)	- 상반기 수출 역대 최고...상위 5개사 쏠림 ·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가 17일 발표한 제주 수출기업 142개사의 2025년·2026년 상반기 수출실적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제주 수출은 역대 상반기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수출 증가세가 소수 상위 기업에 집중되며 상위 5개사가 전체 수출의 92.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	---

경제·관광	수출 (생산)	· 상위 5개사를 제외한 137개사의 수출액은 오히려 20.4% 감소해 기업 간 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무역협회는 수출액 10만~1000만 달러 규모의 '허리층' 기업 성장을 지원해 수출 저변을 넓히는 것이 지속가능한 수출 생태계를 위한 과제라고 제시함. - 고수온·생산비 급등 광어양식 '3중고' · 제주 광어양식이 여름철 고수온 장기화와 생산비 폭등, 출하 단가 정체라는 3중고에 시달리며 사상 최악의 경영난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생산원가가 kg당 1만7000원을 웃도는 가운데 출하가격 정체가 이어지면서 양식어가의 적자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 · 사료비와 전기요금 등 경영비 급등으로 육상양식 어가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면서 제주양식수협은 지하해수 규제 완화와 어가 전·폐업 지원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으며, 고수온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도내 대표 양식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 딸기묘 첫 자체 보급·메밀 간편식 개발 ·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조직배양 기술로 생산한 제주산 우량 딸기묘를 도내 시범 농가에 공급해 오는 9월 정식하며, 그동안 육지에서 구입해 오던 딸기묘를 제주에서 자체 생산·공급하는 첫 사례로 제주산 딸기묘로 기른 딸기는 오는 12월 첫 수확이 이뤄질 예정임. · 농업기술원은 또 전국 메밀 재배면적의 87%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 주산지 제주의 음식문화와 메밀을 접목한 조리법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키트·레토르트 등 간편식 제품까지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등 지역 농산물의 생산·소비 기반 확충을 추진함.
	취업자 (고용)	- 고용률 72%...실업률 2년 8개월 만에 최저 · 국가데이터처 제주사무소가 12일 발표한 7월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4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1000명 늘어 15개월 연속 증가했고,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9%p 상승한 72.0%, 실업률은 0.9%p 하락한 0.9%로 2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 산업별로는 건설업에서 7000명, 농림어업에서 6000명 늘어난 반면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7000명 감소해 관광 관련 서비스업의 고용 한파가 이어졌으며,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소비심리 위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업종 간 고용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타남. - 단기·고령층 쏠림...고용의 질 저하 우려 · 7월 취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36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와 고령층에 집중돼 단기 취업자가 66% 급증하고 60세 이상 취업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임시·일용직과 무급가족종사자 등 불안정한 고용시장으로 내몰리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 취업자 수와 고용률 등 외형 지표는 개선됐지만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들이 단기 일자리로 옮겨가는 고용의 질적 저하가 확인되면서,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성 확보가 지역 고용정책의 과제로 부각됨. - 이전기업 직원 정착지원금 최대 2000만원

경제·관광	취업자 (고용)	· 제주도가 14일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제주 이전 기업 직원에게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정착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 개정안에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제주로 이전할 때도 고용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해 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됨.
	항공 (국제선)	- 제주항공 국제선 환승객 10만명 돌파 · 제주항공의 올해 1~7월 국제선 환승 여객이 10만66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만여명보다 18.4% 증가해 10만명을 넘어섰으며, 중국 국적 환승객이 지난해 1만5600여명에서 2만7200여명으로 74.3% 늘어 4명 중 1명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제주-베이징 서우두·다싱 등 지방발 중국 노선이 국제선 네트워크 확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가운데, 한·중 여행 수요 회복에도 제주-칭다오 여객 직항노선은 지난 3월 27일 마지막 운항 이후 멈춰 있어 칭다오시가 협력이 뒷받침되면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재개 여부가 주목됨. - 광복절 연휴 23만명 입도…국제선 급증 · 제주도관광협회가 12일 발표한 광복절 연휴 입도 동향에 따르면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지난해 같은 기간(22만4342명)보다 3.4% 늘어난 23만2000여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됐으며, 일별로는 광복절인 15일 5만1000명 등 연일 4만~5만명대가 예상됨. · 국내선 입도객은 줄어드는 반면 국제선과 크루즈를 통한 해외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여름 휴가철 제주 관광이 연휴 기간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며,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연휴 기간 제주 관광 수요를 뒷받침하는 흐름이 확인됨. - '도민 이동권 보장' 필수항공노선 입법 · 제주노선 항공권 대란으로 불거진 도민 이동권 제약 해소를 위해 김성범 국회의원 12일 항공사업법·제주특별법·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 등 '제주도민 이동권 보장 3법'을 발의하는 등 제주노선의 필수항공노선 지정과 항공운임 지원을 담은 입법이 시작됨. · 제주공항을 오가는 13개 국내선 노선의 공급 좌석은 7월까지 넉 달 연속 감소했고 좌석 부족은 동계스케줄이 시작되는 10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도민에 대한 좌석 우선 배정과 항공운임 지원 등을 담은 법안들의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짐.
	호텔 (브랜드)	- 제주시 첫 메리어트 '쉐라톤 제주' 9월 개관 · 21년간 제주시 탑동을 대표해 온 옛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이 1년 8개월간의 전면 리모델링을 거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의 대표 브랜드 쉐라톤으로 새롭게 문을 열며, 9월 1일 시범 운영을 거쳐 9월 14일 정식 개관해 제주시 최초의 메리어트 브랜드 호텔이 탄생함. · 쉐라톤 제주 호텔은 총 402개 객실과 100m 규모의 사계절 인피니티풀,

경제·관광	호텔 (브랜드)	1500명 규모 연회장, 제주 최초의 메리어트 브랜드 클럽 라운지 등을 갖추고 MICE·웨딩 수요를 공략할 계획으로, 원도심 프리미엄 호텔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개편 설명회 개최 ·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회장 강동훈)가 오는 26일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도내 숙박업계를 대상으로 호텔업 등급결정 제도 설명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제도 개정안의 세부 기준과 변경 사항을 사전에 안내함. · 설명회에서는 성급별 분리 평가 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는 평가체계 통합과 평가 결과 선택권 부여 등 주요 변경 내용이 안내될 예정으로, 등급결정 적용 숙박업체들의 제도 이해를 높이고 개편에 따른 업계의 혼선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뷰티 브랜드 '제주인디' 일본 100곳 입점 · 제주 기반 뷰티 브랜드 '제주인디(JEJUINDI)'가 일본 유통 플랫폼 매시뷰티랩이 운영하는 코스메 키친 등 일본 주요 뷰티 매장 100곳에 입점했으며, 지난 달 24일부터 2주간 코스메 키친 메인 테이블에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일본 시장 진출 성과를 거둠. · 이번 성과는 제주도와 제주테크노파크가 성장사다리 지원사업을 통해 제품 현지화 등 전방위 밀착 지원에 나선 결실로, 도내 유망 뷰티기업의 성공적인 일본 진출 사례가 나오면서 제주 화장품 브랜드의 글로벌 도약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됨.
	키위 (감귤)	- 제주 키위 생산·유통 실태조사 첫 발간 · 제주농협키위협의회(회장 김진문 조천농협 조합장)가 전국 최대 키위 주산지인 제주의 생산·유통 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2025년산 제주 키위 생산·유통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해 농협 계통조직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한다고 18일 밝혀 산업 기초자료가 마련됨. ·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는 전국 키위 생산량의 51%를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로 생산량 1만1918t, 조수입 512억원을 기록했으며, 키위가 제주 기타 과수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품목임에도 부족했던 체계적 조사가 이뤄져 경쟁력 강화의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수입산 공세에 '탐나도키위' 공동 대응 · 제주산 키위가 감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연간 수입량이 5만t에 육박하는 뉴질랜드 제스프리 등 수입산 브랜드에 가로막혀 성장세가 멈춰선 것으로 나타나면서, 키위 농가들이 '탐나도키위' 통합 브랜드 추진 등 공동 대응에 나섬. · 제스프리와 계약해 제주에서 키위를 재배하는 농가도 확대되는 상황에서 제주산 키위의 인지도를 높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통합 브랜드와 통합 마케팅으로 수입산 공세에 맞서 제주 키위의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부상함. - 노지감귤 관측조사에 AI 자동화 기술 도입 · 제주도가 2026년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 관측조사에 스마트폰 영상과 인공지능

경제·관광	키위 (감굴)	능(AI)을 활용한 자동화 기술을 도입해 18일부터 21일까지 2차 관측조사를 실시하며, 조사원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시가 분석해 생산예상량 산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자동화 기술 도입으로 조사 시간은 대폭 줄이고 데이터 정확도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2차 관측조사가 AI 기반 감굴 관측 자동화 기술의 첫 시험대가 되는 만큼 현장 검증 결과에 따라 감굴 관측조사의 효율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	--

- 지역·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열대야(폭염), 강수량(침수), 광복절(평화), 도로(차량), 꽃자왈(생태) 등으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지역·사회	열대야 (폭염)	- 한 달여 만에 멈춘 열대야, 하루 만에 재발 · 지난 7월 7일 이후 35일간 이어지던 제주지역 열대야가 지난 11일 밤 제주(북부) 최저기온이 23.3도까지 내려가면서 한 달여 만에 사라졌으나, 12일 밤 사이 최저기온이 제주 25.4도·서귀포 25.6도를 기록해 서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하루 만에 다시 발생함. · 올해 도내 지점별 열대야 발생 일수는 제주 36일, 서귀포 34일, 고산 30일
-------	-------------	--

지역·사회	열대야 (폭염)	등으로 집계됐으며, 입추가 지나며 잠시 꺾였던 밤더위가 낮 동안 달궂진 기온이 밤사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되풀이되는 등 기록적인 늦더위가 좀처럼 물러나지 않는 양상을 보임. - 비 그친 제주, 다시 폭염·열대야특보 · 광복절 연휴 폭우가 그친 뒤 무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18일 제주시 북부·서부와 서귀포시 남부·동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열대야주의보도 내려졌으며, 19일 낮 기온은 최고 32도까지 오르고 밤사이 열대야도 나타날 전망이다. · 호우특보 속에 사흘간 많은 비가 내리는 동안에도 16일 밤부터 17일 아침 사이 최저기온이 제주 25.7도, 서귀포 25.4도, 고산 25도를 기록하는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져, 비가 그친 뒤에도 한여름 찜통더위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보됨. - 온열질환 사고 이어져...취약 현장 점검 · 지난 17일 낮 12시 50분께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 뒷밭에서 야외 작업을 하던 80대가 고열과 의식장애 등 전형적인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등 폭염 장기화 속에 고령층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피해가 이어지고 있음. · 서귀포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온열질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4일간 육체 노동 강도가 높은 11개 사업단의 여름철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점검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도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에 나서는 등 보호 활동이 강화됨.
	강수량 (침수)	- 연휴 최대 685mm 폭우...한 달 가뭄 해갈 · 광복절 연휴 기간 저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15일부터 제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려 18일까지 도내 누적 강수량이 최대 685mm에 달했으며, 성산 수산 374mm, 우도 240.5mm, 가시리 235.5mm, 구좌 213.5mm 등 가뭄이 극심했던 동부 지역에도 폭우가 집중됨. · 이번 비로 바짝 말랐던 토양이 제주 전역에서 '다습' 단계로 돌아서고 저수율도 상승해 가뭄 관심단계에서 벗어나는 등 한 달 넘게 이어진 가뭄이 사실상 해소됐으며, 농업용수 부족으로 파종에 차질을 빚으며 애태우던 농가에 모처럼 해갈의 단비가 됨. - 주택 침수·나무 쓰러짐 등 호우 피해 · 사흘간 이어진 폭우로 제주시 구좌읍에서 주택이 침수되고 도로 배수구가 범람하는 등 피해가 잇따랐으며, 16일에는 서귀포시 남원읍 5·16도로 숲터널에서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가로막으면서 차량 통행이 한때 중단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섬. · 17일에는 구좌읍 두산봉교차로 남측 도로에서 렌터카가 침수 위험 도로를 지나다 갓길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호우 피해 신고가 이어졌으며, 가뭄 해갈의 기쁨도 잠시 단기간 집중된 폭우로 도내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확인돼 안전 관리가 요구됨. - 단기간 폭우에 일부 작물 생육 피해 우려 · 광복절 연휴 많은 비로 가뭄은 해갈됐지만 며칠 사이 수백mm 상당의 폭우가

지역·사회	강수량 (침수)	집중되면서 18일 제주도 농업기술원 등에 따르면 일부 작물의 생육 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며, 동부지역에서는 갓 파종한 당근 재배지 등의 침수 피해를 걱정하는 농민들의 목소리가 나옴. · 가뭄에 메말랐던 밭작물에는 해갈이 됐지만 농가들 사이에서는 이제는 비가 그쳐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등 걱정이 가뭄에서 침수로 옮겨간 상황으로, 폭우 이후 밭작물의 생육 관리와 침수 예방 등 농업 현장의 후속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광복절 (평화)	-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대통령 표창 추서 · 제주도가 15일 제주아트센터에서 '함께 이룬 광복, 함께 여는 제주의 미래'를 주제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열었으며, 일제강점기 독립을 염원하는 기도제를 19차례 올리다 옥고를 치른 제주 출신 고(故) 양봉진 선생에게 대통령 표창이 추서됨. · 위성곤 지사는 선조들의 항일운동이 제주를 일군 힘이자 소중한 유산이라며 새로운 100년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으며, 보훈 유공자인 강상무·고인석·정희열·한재월씨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는 등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되새김. - 제주 출신 6명 독립유공자 반열에 ·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제주 출신 6명이 새롭게 독립유공자 반열에 올라 한 봉삼·김서호 선생에게 애국장, 송태욱 선생에게 애족장이, 김창호·고원택·양봉진 선생에게 대통령표창이 수여되는 등 조국 독립에 헌신한 제주 선열들의 공적이 인정받음. · 제주인들은 1923년부터 1945년까지 제주~오사카를 운항한 정기 연락선 군대환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가 고무·방직공장 등에서 일하며 고단한 삶을 이어갔으며, 이번 서훈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한 제주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마련됨. - 도내 유일 생존 강태선 애국지사 위문 · 위성곤 지사가 광복절인 15일 서귀포시 성산을 자택으로 국내 생존 독립유공자 3명 중 1명이자 도내 유일 생존 독립유공자인 강태선 애국지사(102)를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공훈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함. · 1924년생인 강 지사는 이 자리에서 독립유공자 후손을 각별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으며, 애국지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광복잇길' 기림비 제막식도 열리는 등 광복 81주년을 맞아 생존 애국지사를 예우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억하려는 발걸음이 이어짐.
	도로 (차량)	- 전국체전 대비 도로 15개 노선 정비 · 제주시가 오는 9월과 10월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전국체육대회에 대비해 총사업비 27억원을 투입, 일주동로·중앙로·애조로·제주대학로·노형로 등 주요 도로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포장과 개·보수 등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힘. · 정비 대상 노선은 경기장·주요 방문지와의 연계성, 교통량, 포장 파손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으며, 대회 기간 선수단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

지역·사회	도로 (차량)	와 주행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일상 교통 환경도 함께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됨. - 삼성여고~칼호텔 도시계획도로 내년 개통 · 서귀포시가 삼성여고 정문에서 서귀포칼호텔 인근 칠십리로(보목동 진입로)를 연결하는 '삼성여고~칼호텔(중로3-1-18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64억여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개통될 전망이다. · 도로가 개통되면 주변 교통 혼잡이 해소돼 교통 흐름이 개선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서귀포 도심의 교통 여건과 통학로 안전을 함께 개선하는 사업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광복절 연휴 도내 곳곳 차량 사고 잇따라 · 광복절 연휴인 16일 제주시 용담2동의 한 사거리 도로에서 승용차가 보행자를 충격한 뒤 전신주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해 60대 남성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40대 여성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연휴 기간 도내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름. · 15일 오후에는 제주시 애월읍 경마장 인근 평화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고, 17일에는 많은 비 속에 구좌읍 두산봉교차로 남측 도로에서 렌터카가 갓길에 빠져 침수되는 등 차량 관련 사고가 이어져 연휴 기간 도로 안전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꽃자왈 (생태)	- 꽃자왈공유화재단 새 비전·통합 CI 공개 · 제주꽃자왈공유화재단(이사장 김범훈)이 2027년 재단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비전 '생명의 숲 꽃자왈, 함께 지키는 지속가능한 Jeju'를 선포하고 이를 반영한 통합 CI(로고)를 18일 공개했으며, 새 로고는 제주대 융합디자인학과 문수민 교수팀이 재능기부로 공동 개발함. · 고사리와 나무, 두 손을 담아낸 새 로고는 2007년부터 실천해 온 꽃자왈 공유화운동의 가치를 집약한 것으로, 창립 20주년을 앞두고 선포된 새 비전과 함께 생명의 숲 꽃자왈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제주 실현의 방향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정원도시 제주' 기본계획 수립 착수 · 제주도가 지난 14일 복지이음마루 대강당에서 '정원도시 제주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제주 고유의 자연·생태자산과 연계한 정원도시 모델을 구체화하는 실행계획 마련에 착수했으며, 행정시 관계부서와 정원·조경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함. · 용역에서는 제주형 정원도시 모델의 방향·전략 구체화와 공간 계획 등이 다뤄질 예정으로, 제각각이거나 획일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제주 고유의 자연·생태를 담은 정원 조성의 밑그림이 마련되면서 '정원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걸음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제17회 거문오름 트레킹 개막 · 제주도가 주최하고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위원회가 주관하며 제주도개발공사가 후원하는 '제17회 거문오름 트레킹' 개막식이 14일 제주시 조천

지역·사회	곶자왈 (생태)	읍 선흘2리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열렸으며, 닷새간 탐방객을 맞이하는 트레킹 일정이 시작됨. · 개막식에 앞서 거문오름 풍물단의 길놀이 등 행사가 진행됐으며, 단 5일간만 탐방객을 맞는 신비로운 숲길이 활짝 열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의 용암길을 따라 걸으며 제주의 생태와 자연유산 가치를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도민과 관광객에게 제공됨.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이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